

6. 16

국제위원회 회의

한국치과계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위원회가 앞장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국제위원회는 양정강 위원의 제안으로 FDI 개인회원들간의 모임 결성을 만장일치로 추진키로 했으며 FDI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두가 앞장서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6. 18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정성장 위원장은 학술대회 진행요원 확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더 원만한 대회운영을 위해 진행요원을 추가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대책회의

지난 6월 13일 개최된 바 있는 '국민구강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6. 23

FDI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 교육

FDI 서울총회에서 숨은 활동을 펼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제1차 교육이 실시됐다. 각 본부장과 위원들이 참석하여 FDI 개요와 서울총회 조직위원회의 총체적인 활동내용을 소개했다.

6. 26~29

치협 회장단 일본방문

이기택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회장단은 일본 치협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측에서는 일본치과의사들이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FDI 서울총회에 대거 참석할 것이라고 하며 FDI 서울총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7. 5

제1차 지부장회의

이기택 협회장은 '회원간 생각의 차이를 하나로 결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라며 집행부를 믿어주고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황해순 대의원총회 의장은 지난 46차 대의원총회 때 정관개정을 마무리 못한 점을 사과하고 FDI 서울총회 준비 등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준 대의원들과 협회임원들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치협 홈페이지 개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kda.or.kr> 이며 치협에 관한 정보와 FDI 서울총회에 관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7. 8

제100차 FDI 본부장회의

윤홍렬 위원장의 인사말과 함께 각 본부별 진행상황 보고가 있었고 개막식 행사에 대해 가장 적은 예산을 들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였다. 94년 5월 9일 제1차 회의가 열린 이래 3년 2개월여만에 1백차 본부장 회의를 맞이한 셈이다.

치과기기 설문조사 경품 추첨

정기이사회에서 치과기자재 보유현황 실태조사에 응답해 준 4천4백여명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했다. 1등에게는 컴퓨터 1대가 주어지는데 서울 중랑구 목동 상아치과의원장 이연주 씨가 행운을 차지했다.

7. 11

제1회 정관개정연구위원회 회의

위원장 포함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정관개정연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한달에 1번씩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하기로 했으며 작년에 정관 전체를 축조 심의 했기 때문에 사안별로 주제를 정해 중점적으로 개정작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7. 14

협회장 총무처 방문

이기택 협회장과 윤홍렬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서울총회 조직위원장이 김한규 총무처장관을 만나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7. 19

치의신보 가로쓰기 단행

치의신보가 가로쓰기를 시행하면서 각 면을 색선화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성격이 비슷한 공론과 덴탈미러는 폐지되고 시론 하나로 재탄생됐으며 신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3면(일간종합지는 1면)은 광고없이 통판으로 편집되며 기사알림란을 신설, 각면의 기사를 쉽게 찾아 읽을 수 있도록 편집했다.